

EU와 비관세분야 장벽해소

지난 10월 한-EU FTA의 최종 서명으로 EU와 본격적인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원장 : 허경)은 주한 EU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EU FTA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 인증과 같이 수출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양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 문제를 해소하는 창구로서 한-EU간의 무역원활화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금번 협력체결로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하여 국내기업은 WTO 통보문을 받기에 앞서 새로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주한 EU상공회의소는 850여개의 주한유럽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서울 본사와 더불어 부산과 파리 사무소에 총 27개 산업별 분과를 두고, 대정부 통상협상과 한국기업의 대유럽 진출 등 한-EU 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을 하여왔다.

기술표준원은 한-EU FTA를 기점으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한 기업설명회 및 이행지침서 발간을 금년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MOU 서명식을 추진한 기술표준원 허경 원장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역을 저해하고 수출기업의 애로가 되고 있는 기술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EU, 한-미 FTA 이행에 맞추어 발족한 기술표준원내 TBT 중앙사무국은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국내 기업에 전달하고 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돕는 서비스 체제로 업무를 개편하였다.

주한 EU상공회의소는 EUCCK (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으로 설립연월은 1986년 2월이다. 조직(상근인원 : 30여명)은 회장이 장 마리 위르피제, 상근소장이 장 자끄 그루하이다.

본사(서울), 사무소(부산, 파리), 유럽-코리아 재단으로 구성되고, 회원사가 총 850여 회원사이다. 주한 27개국 EU대사관이고, EU 9개국 상공회의소 및 단체, 600여 주한유럽기업체 대표 등이다. 150여 한국 및 기타국 기업, 20여 유럽소재 외국기업 등이 회원이다.

위원회는 총27개 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되고, 부동산위원회, 자동차위원회, 은행위원회, 증권위원회 등이 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국내 투자한 유럽기업을 대표

하여 대정부 통상협상을 하며, EU 집행위 및 EU 27개국과의 협의를 통한 통상안 준비를 한다.

한국기업의 대유럽진출 창구이다. 한국의 대유럽 진출상담 및 정보제공한다. 유럽기업들의 대한(對韓) 직접 투자유치 활동도 한다. 전략보고서 작성, 투자유치설명회, 유럽투자유치단 파견 등이다.

한편, 한중 무역구제기관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중 양국 무역구제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간 불필요한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자제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수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11월 9일, 제주 서귀포에서 중국의 무역구제정책 및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과 「제11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무역위원회 이승재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저우샤오옌(周?燕)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한국산 TPA 반덤핑 조사를 주도했던 중국측 한용(?勇) 규칙처장 등도 함께 참석하였다.

*** TPA(테레프탈산,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페트병 주원료)**

조사개요

- 수출규모 : '09년 對중국 수출 약 23억불 규모
- 조사경위 : '09.2월 조사개시 → '10.2월 예비덤핑 판정 (한국 2.4~4.2%, 태국 12.2~18.9%) → '10.8월 최종판정 (한국 2.0~3.7%, 태국6.0~16.9%)

이 자리에서 양국은 무역구제 법률 및 제도 동향, 무역구제 조치 현황, 덤핑조사의 기술적 이슈, WTO/DDA 협상에서의 무역구제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 EU 등으로부터 상계관세 조사를 많이 당하고 있어 한국측의 상계관세 피소 사례

와 그에 대한 대응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상계관세 조사(Countervailing duty,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미국, EU, 일본으로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2003년 ~ 2008년)받아 그에 대해 WTO 제소 등을 통해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 현정택 위원장은 회의 후 열린 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10여년 동안 개최된 이 정례 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이 깊어졌으며, 이를 통해 최근 TPA 판정 등 양자간 통상 현안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양국간 불필요한 반덤핑 조치가 교역확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한국은 총 11건의 중국산 품목, 중국은 총 20건의 한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으로, 양국 상호간 현재 규제중인 반덤핑 조치가 많다.

또한, 한중간 교역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양국간 반덤핑 조치가 증가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92년 수교당시 63.7억불에서 '09년 1,409억불에 달해 22배 이상 급증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례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통상 현안을 조율하고 우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다.